

01

몽골

Mongolia

긴 겨울의 터널을 두 번째 맞으며~

- › 활동기관 : 몽골국영방송국(MNB)
- › 자문분야 : 산업기술
- › 자문내용 : 방송제작 교육
- › 성 명 : 금 웅 명



몽골의 겨울은 한국과 달리 유난히 길다. 9월에 시작한 춥디추운 겨울은 만추로 접어드는 10월부터 첫 눈을 뿌리더니 이내 영하 30도를 예사로 넘나든다. 특히 작년 겨울은 그렇게 성질을 부리며 더디 가더니 올해 6월에 접어들어서야 이곳 울란바토르에 봄을 품은 새싹들이 얼굴을 내민다. 그 긴 겨울 동안 나는 ‘금 피디의 몽골 단상’이라는 가제를 정해 놓고 몽골에 대한 짧은 생각들을 정리하기 위해 시간만 나면 키보드와 씨름했다. 지금도 나는 시간과의 싸움에 진력하고 있다. 여러 단상 가운데 내 본업인 자문관과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소개한다.

탈출구가 되어 준 울란바토르

답답한 하루의 시작이 나의 목을 조르고 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연속이다. 새벽 4시 쯤에 일어나 캄캄한 한강 둔치를 습관적으로 걷는다. 몸의 근력과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신체의 움직임이 둔하다고 느낀 게 벌써 꽤 오래된 것 같다.

“1. 기합, 2. 시선, 3. 중심과 중심의 이동, 4. 신체의 신축, 5. 힘의 강약, 6. 기(技)의 완급, 7. 기(技)의 정확, 8. 거리의 조정, 9. 호흡법, 10. 수족 단련법”

‘무덕관 수련상 10개 중점’이라고 구령을 외친 후 대련을 하고 정권과 수도(手刀)를 단련하던 시절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가 된 듯했다. 그래도 지금까지의 내공 덕분에 방송 일은 잘 해내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텔레비전 프로듀서 생활은 젊은 날의 족적, 그 전부였다. 나는 이 세상 모두가 방송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고 프로듀서가 가장 멋진 직업이라고 여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방송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젊은 학생들에게 강의도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류 프로듀서가 되고자 꿈꾸는 이들에게 내 강의와 그 속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해졌는지….

마지막 일터라고 여긴 학교였지만 실상은 조용한 교수실을 지키다 강의실을 오가는 게 전부였다. 학생들에게 조금 더 아는 지식과 방송 체험을 늘어놓는 전달자 역할이, 나의 영혼이 들어간 프로그램을 연출해 방송하는 것보다 보람 있는 일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나를 포함해 교수라는 사람들 역시 내가 대학교에 다닐 때 존경했던 교수님들처럼 위엄과 실력을 겸비한 이들은 아닌 것 같았다. 그렇다고 내가 독보적이거나 남다른 학식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사르트르가 그의 작품 <구토>에서 ‘세계의 지식을 모두 다 소유하고 싶다’고 한 대목이 갑자기 떠오른 것은 나이를 웬만큼 먹은 후였다.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었던 학교를 신 것도 벌써 4년.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으니 나이 예순이 지나면서 쉴 때도 되었다며 자신을 위안했다. 식구들에게 겸연쩍은 마음도 갖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와 아들이 나에게 눈총을 주기 시작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여든을 넘는 시대에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왜 쉬느냐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게다가 혼기가 찬 큰아들은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아버지를 실업자로 소개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았다. 사정이 이렇고 보니 젊은 시절 내 자존심만으로 살아 왔던 나도 언뜻 불안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나이가 들면서 단순하게 살 수는 없는 걸까?

서울 한강변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지루해질 무렵 우연히 퇴직 전문가들의 해외 파견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내 NIPA에 지원서를 냈고, 익숙지 않은 영어 면접도 봤다.

몽골국영방송국(MNB:Monglian National Broadcaster)으로 배정된 나는 자문관으로서 현지 방송 관계자들의 방송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방송사(KBS, SBS, TBC)에서 근무하며 해외 경험은 꽤 있었지만 내가 몽골에 관해 아는 것이라고는 ‘칭기즈 칸의 나라’, ‘푸른 초원의 나라’ 정도였다. 더욱이 몽골의 방송 현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프

로듀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또 하나의 시도였고, 만만치 않은 모험이었다.

큰아들의 배웅을 받으며 몽골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한창 여름으로 접어들 7월 중순, 비행기 안은 시끌벅적하다. 몽골 승객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 여름방학을 맞아 봉사 활동을 떠나는 남녀 대학생들의 왁자지껄함이 비행기 안을 가득 채웠다. 서로의 사진을 찍어 주며 웃는 활기찬 모습이 보기 좋았다. 나도 언제 저런 적이 있었나 상념에 잠기려는 찰나, 좁은 복도 저만치서 승객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는 몽골 여승무원이 내 눈길을 끈다. 곱게 화장한 얼굴과 갈색으로 염색한 단발머리, 흰 셔츠를 푸른 유니폼 안에 받쳐 입은 모습이 단아하고 정갈하다. 몽골 항공사 여승무원이 한 나라의 이미지를 심어 주는 순간이었다. 비행기는 3시간여를 날아 울란바토르에 안착했다. 내 좌석이 비행기 날개 옆, 그것도 복도 쪽이라 드넓은 초원은 보이지 않았다. 기대했던 풍경을 볼 수 없는 아쉬움이란... 아직도 몽골은 미지의 나라였다.

도착한 공항은 '징기스칸 국제공항'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작고 아담했다. 지금까지 봐 왔던 크고 시원스런 국제공항들과 비교하면 이 공항은 어느 시골 기차역 같았다. 우선 보기에 공항 건물의 천장이 낮고 공간도 좁았다. 1991년 개방 직후 동유럽 취재 때 들렀던 루마니아의 부쿠레슈티 공항이 떠올랐다. 과거에 엇비슷한 공산권 국가였기 때문이었을까?

입국 카드를 내밀자 묻지도 않고 스탬프를 찍어 주는 입국 심사, 무작위로 지정한 핸드캐리어 한 개만을 엑스레이로 검사하고 모두 통과시키는 입국 수속까지 딱히 절차랄 것도 없었다. 관광 철을 맞아 손님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으려는 배려였을



울란바토르의 징기스 칸 국제공항

까? 사회주의 국가로 북한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선입견 때문에 몽골에 대한 다소의 거부감이 있었지만 공항에 도착해 보니 딱히 그런 부담은 없었다.



울란바토르 시내. 영어 광고 차량이 특이했다

입국장을 나서니 방송사의 국제 협력 파트 담당자인 바야르마와 한 해 먼저 파견되어 기술 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노경률 자문관이 나를 맞아 주었다. 방송사에서 제공한 지프차를 타고 시내로 향하며 눈에 들어온 도시 외곽 풍경은 마치 1960년대 우리나라 같았다. 어릴 적 내가 살던 대구 신천동과 별반 다르지 않은 풍경이 이어졌다. 허술한 건물과 흙먼지가 날리는 도로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50년 전으로 돌아간 듯했다. 포장도로가 보이는 울란바토르 시내로 들어서자 도시가 주는 익숙함 때문인지 안도감이 든다. 그런데 차량이나 사람들이 눈치껏 달리고 길을 건넜다. 엉망인 교통질서. 그것이 울란바토르에 대한 첫인상이었다.

시내로 들어오는 도중에 바야르마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방송사 간부들과 만나려 했던 일정이 변경됐다는 것이었다. 출발 며칠 전부터 약속했던 일정이 내가 도착하는 날, 그것도 일방적인 통보로 바뀐 것이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다. 하지만 난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하러 이곳에 온 사람이었다. 현지 문화에 빨리 익숙해지려면 지금까지의 관념을 버리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사실 한국도 ‘코리언 타임’이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지 않았던가.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으로는 쉬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곳에선 낙관적으로 상황을 즐기기로 했다.

숙소로 정한 아무레(Amure) 호텔은 우리나라의 여관 수준이었다. 하루 숙박비가 99,000투그릭(한화 5만 7,500원 정도)이면 웬만한 수준을 기대했지만 그저 그랬다. 마무리 공사가 덜 된 듯 실내 분위기도 깔끔하지 않았다. 더욱이 엘리베이터까지 고장이었다.

배정 받은 4층 방까지 걸어가며 ‘불평하지 말자’, ‘빨리 익숙해지자’ 수없이 나를 달랬다.

공포 영화 배경 같았던 아파트

이튿날 아침, 바야르마가 방송사 로고가 새겨진 승용차를 타고 호텔 앞에 나타났다. 고맙게도 나에게 신경을 쓰는 눈치였다. 일단 렌트 아파트를 찾는 게 급선무였다. 바야르마가 미리 알아 봐 둔 방송국 주변의 아파트들을 둘러보았다. 월세가 75만 투그릭(한화 43만 5,000원 정도)이나 되는 아파트였음에도 허름하기 짝이 없었고, 일부는 재개발 직전의 모습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대부분 공산주의 시절인 1980년 전후에 지어졌다고 했다. 건물 외벽은 을씨년스럽게 금이 가고 시멘트가 떨어져 나가 있었다. 러시아제 엘리베이터는 느리고 좁아 터졌으며, 계단과 랜딩 부분의 벽은 공포 영화 촬영장 같은 색깔이었다. 킴킴한데다 김푸른 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가구들이 헝클어져 있고 어둡침침한 분위기 속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게 안쓰럽기까지 했다. 아파트 몇 곳을 둘러보며 한국의 일반적 아파트를 기대한 스스로를 책망했다. 현지 환경에 맞는 시각과 사고로 전환해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했다. 그렇다. 이곳은 오랜 유목 생활 끝에 도시로 정착하면서 형성된 울란바토르 서민들의 거주지가 아니던가. 모든 것을 지금 몽골인의 시각으로 봐야 했다.



숙소에서 내려다본 주택가, 게르도 함께 들어서 있다



해질 녘, 아파트 서쪽 창문을 통해 보이는 간담 사원

울란바토르 도착 첫날부터 이튿날까지 십여 군데의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전반적으로 비슷한 시설과 환경이었지만 그나마 서쪽과 북쪽으로 창이 있어 전망이 좋고 실내 공간이 시원해 보이는 곳을 빌리기로 했다. 이곳의 아파트는 주로 서향이었는데, 추운 겨울에 햇빛을 좀 더 오래 받기 위한 것 같았다. 숙소로 결정한 아파트는 방 한 개, 거실, 주방, 화장실, 목욕실을 갖춘 한국의 13평형 아파트와 구조가 비슷했다. 방송사와 가깝고 국영 백화점의 슈퍼마켓에 들러 장보기도 편할 것 같았다. 계약서를 쓰고 돌아오는 길, 울란바토르 도착 나흘 만에 동지를 마련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다.

디지털 유목민 행렬로 뛰어들다

난 그동안 아날로그형 인간으로 살아 왔다. 기계하고는 답을 쌓고 살아온 터라 텔레비전 리모컨과 폴더형 휴대 전화 외에는 디지털 기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방송사 부장과 국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뭔가를 찾아오라는 지시만 내렸지, 나 스스로 무엇을 찾아 해냈던 일은 별로 없었다. 기껏 노트북으로 큐시트나 이력서 등을 작성하고, 강의 교안 작성을 정리하거나 학생들의 성적을 입력하는 일이 고작이었다. 21세기를 사는 나는 컴퓨터 초급반 수준도 버거운 디지털 유목민이었다. 연출자 역할을 할 때에는 일일이 손으로 쓴 큐시트를 복사를 해서 썼고, 나이가 들고 프로듀서 역할을 하면서는 머릿속 생각을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전달만 하면 됐다. 하지만 조직을 벗어나, 더욱이 낯선 몽골에서 나는 모든 것을 혼자 해야만 했다. 덜컥 겁이 났다.

내 근심은 이미 파견 전 교육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월간 보고, 분기 보고, 활동비 정산 등 적지 않은 컴퓨터 작업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걱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었다. 굳은 결심으로 10년이나 된 폴더형 휴대 전화를 서울에 남겨 두고, 몽골에 도착하자마자 큼직한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디지털 혁명이라는 물결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우선 컴퓨터 활용부터 배워야 했다. 몽골 방송사는 물론 한국 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컴퓨터가 필수였다. 진작 관

심을 갖고 사용 방법을 배웠다면 좋았을 터인데... 도도한 디지털 혁명 시대에 둔감한 탓도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 무슨 필요가 있을까 여겼던 안이함과 나태함 때문에 너무 늦게, 그것도 통신 기기 하나 달랑 들고 디지털 유목민 행렬에 허겁지겁 뛰어 들었다.

말도 안 되는 바가지를 쓰다

나와 함께 몽골로 파견되어 기상청에서 근무하게 된 이영웅 자문관의 아파트는 시내 남쪽에 있었다. 간만에 그를 만나고 숙소로 돌아갈 차를 타려고 단지 입구에서 서성이는데 승용차 한 대가 슬며시 앞에 섰다. 차를 타고 운전사에게 나의 목적지를 말하자 그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무조건 남쪽 외곽 도로를 달렸다. 내가 몽골어를 모르는 외국인임을 알아차리자 작정을 했던 모양이다. 내가 있는 아파트는 울란바토르 시내 북쪽 지역인데 차는 자꾸 서쪽으로만 달렸다. 오후에 해가 떠 있는 방향으로 봐 뭔가 이상했다. 아차 싶었던 나는 북쪽 방향으로 손짓하며 다른 길로 가자고 했다. 그제야 차를 제 방향을 잡았고, 우여곡절 끝에 숙소 건물 앞에 도착했다. 그런데 차비로 12,000투그릭(한화 7,000원 정도)이나 달라는 것이 아닌가. 이 자문관 아파트를 나와 전기 버스를 타면 300투그릭(한화 175원 정도)이면 될 것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말이 통해야 싸움도 되는 법. 결국 그의 요구대로 호주머니에 있던 돈을 털어 줄 수밖에 없었다. 그다지 좋지 않은 인상에 교양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운전사와 실랑이를 하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일이었다. 알면서도 당한 택시 탑승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바가지를 씌우기로 작정했던 것 같았다. 불쾌한 경험에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어찌겠는가. 울란바토르 남쪽과 서쪽 지리를 익히는 데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치자며 스스로 위로하면서도 며칠 간 그 운전사의 산적 같은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었다.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실감한 어처구니없는 사건 이후 나는 간단한 몽골어를 익혔다. ‘찌게레(공장 똑바로)’, ‘바룬(오른쪽)’, ‘준(왼쪽)’. 이 세 마디로 나는 오늘도 차를 타고 다닌다.

땡벌 아래의 소운동회

누흐트 호텔에 들어서자 “KOICA 해외봉사단, 중장기 자문단, NIPA 자문단 2014년 현지 평가 회의”라는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이곳저곳에 청년, 장년, 노년의 남녀가 섞여 두런두런 이야길 나누고 있었다. 나눠 준 세부 일정표를 보니 우수 활동 사례 발표 후 점심을 먹고 간단한 소운동회가 진행되는 일정이었다. 회의에는 태권도 지도자, 유아 교육, 한국어 교육, 한방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였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단원들이 몽골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어림잡아 100여 명은 되는 것 같았다. 우리나라의 국력이 정말 발전한 모양이다.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 왔지만, 실제 그 현장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친목 도모를 위한 소운동회 시간이 됐다. 노장들(KOICA 중장기 자문단, NIPA 자문단 일행)이 그늘에서 환담을 나누는 동안 소장들(젊은 봉사단원들)은 따가운 태양 아래 레크리에이션에 빠져 있었다. 몇 가지 상품과 상금 300달러가 걸려 있는 조출하고도 젊음이 가득한 운동회였다. 삼삼오오 게임을 즐기고 노래를 하는 이들에게서 넘치는 에너지가 느껴졌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끼리 어울리지만, 내일은 지구촌 식구들과 함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월드 프렌즈(World Friends)라는 단어가 새삼 따뜻하게 다가왔다.

질보다 양? 아쉽지만 한 몽골의 방송

밤늦게까지 독일 방송(Deutsche Welle)에 마음을 빼앗겨 잠을 이루지 못했다. 스튜디오 좌담 프로그램의 카메라 워크도 좋았고, 취재물 촬영이나 편집도 내 마음에 꼭 드는 연출 방식이었다. 영상 처리도 깔끔하고 너저분한 것이 없었다. 시사 프로그램의 경우 여자 앵커의 배경을 베를린의 상징 건축물인 브란덴부르크 문으로 설정했는데, 방송사 로고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상황 설정 컷이다. 특히 부드러운 카메라 워크는 독일의 정밀

한 기계 속성을 닮은 듯했다. 알게 모르게 움직이는 화면의 변화는 우리가 배울 만했다. 여기에 완성도 높게 설치된 세트와 조명은 적당한 화면 색조와 밝기를 자아냈다. 한동안 BBC 월드의 세계 뉴스에 정신이 쏠려 있다가 독일 방송을 보니 프로그램의 흐름이 한결 편안하게 느껴졌다.



브란덴부르크 문을 배경으로 멘트를 하는 앵커

몽골의 케이블 텔레비전은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을 비롯해 영국, 독일, 호주, 이탈리아, 스페인어 방송까지 채널이 다양했다. 넘치는 지구촌 정보를 여과 없이 받아들인다는 점에서는 우리보다 더 개방적으로 느껴졌다. 지상파 방송도 10여 개나 되는데, 정작 몽골국영방송국(MNB) 국영 방송은 2개로 채널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선심성 정책으로 민간 방송을 마구 허용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실제로 현지의 방송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비스킷 개수는 뽀한데 서로 차지하려다 보니 프로그램의 충실 지수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듯했다. 한두 개 프로그램을 빼면 평균적인 수준이 그저 그랬다.

뉴스의 이미지는 한마디로 촌스러웠다. 뽀한 뉴스거리만 다루다 보니 다양한 영상을 기대할 수 없었다. 부드러운 아이템도 보이지 않고 고발 아이템은 거의 없었다. 개발 도상국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정도가 심했다. 교양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주로 몽골의 전통을 소개하는 데 편중되어 있었고,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제작은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수준이었다.

방송을 보니 제작비를 제대로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방송국의 내년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예정이라니 몽골 국가 경제가 심히 걱정스러웠다. 느슨한 근무 태도로 일관하는 몽골 공무원들처럼 방송사도 크게 바쁘거나 급한 게 없어 보였다. 아직까지 경쟁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일 터. 다만 서구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돌아온 지식인들이 늘어나고 각 분야에 노하우가 쌓인다면 몽골에도

자본주의의 요체인 경쟁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몽골 방송사에 앉아 한국 방송을 생각하다

평소에 내 머리 속에 들어 있는 아이디어를 길게 써서 'KBS 월드'의 담당 국장에게 이 메일을 보냈다. 광복 70주년에 즈음하여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아닐지언정, 공영 방송사에서 제작해 봄직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몽골 방송사 사무실에서 한국 방송을 생각하다니... 내가 세계 경영을 하는 CEO는 아니지만, 또한 실현 가능성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내 머리 속의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게 아깝지 않은가.

- 한반도의 동서 북위 38도선 미, 소군 포스트(post, 경계초소) 현장
- 중국 석가장(石家庄) 현장
조선의용군의 항일전투 현장, 이후 팔로군을 거쳐 북한 인민군의 모태가 됨
- 카자흐스탄 고려인 3, 4세가 사는 현장
1937년 스탈린의 박해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의 애환, 고생담
- 터키, 한국전 참전국
- 그리스, 한국전 참전국
- 스페인, 순례자의 길 걷는 한국인, 산티아고 가는 길
- 미주 워싱턴, 보스턴 현장
한반도 38도선을 그은 미 국무성 사무실
개화파 유길준이 도착한 곳
- 덴버의 한인 동포들
- 샌프란시스코, 유길준이 배를 타고 도착한 곳
이후 동서 횡단 열차를 타고 워싱턴 도착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는 북위 38도선을 따라 서쪽으로 계속 가면 중국과 카자흐스탄을

만나고, 이어서 터키, 그리스, 스페인이 나온다. 또한 대서양을 건너면 미국을 만나게 된다. 이곳에 사는 한인 동포들의 모습과 한국 현대사와 관련된 현장을 훑어보면 좋을 것 같다. 이곳에 사는 한인 동포들의 모습과 한국 현대사와 관련된 현장을 훑어보면 좋을 것 같다. 이곳에 사는 한인 동포들의 모습과 한국 현대사와 관련된 현장을 훑어보면 좋을 것 같다. 이곳에 사는 한인 동포들의 모습과 한국 현대사와 관련된 현장을 훑어보면 좋을 것 같다.

김학준 교수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처음엔 직선의 분단이 한반도의 영토적 분단을 가져 왔고, 다음은 곡선의 분단이 한국전쟁의 결과로 이어졌고, 지금은 마음의 분단, 나아가 갈등과 증오가 쌓인 대치 상황이 우리의 고질적 분단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언젠가 울란바토르에서 서울까지 육로로 갈 날을 꿈꿔 본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 현실이 될 지도 모를 일이다.

반가운 선물, 고추 한 움큼

커피 한 잔을 타러 주방에 왔는데 서편 언덕 위로 선명한 보름달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서둘러 사진을 찍고 느긋하게 달 감상을 하려는데 10분도 채 안 돼 언덕 아래로 꿀꺽 넘어가고 말았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 저 달을 볼 것을…. 어제가 추석이었는데 아마도 고향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겠지.



유목 국가인 몽골은 가을 수확과 관련

몽골의 새벽 보름달

된 보름달의 의미를 모른다. 일 년 내내 언제라도 가축 떼가 새끼를 낳고 어미의 젖을 짤 수 있으니 일 년이란 시간의 의미를 잘 모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도 '신질'(새해라는 뜻)이라며 명절로 여기는 것은 우리와 마찬가지로이다. 몽골에서는 연말이면 직장마다 신질 파티를 열고 맛있는 음식과 몽골 보드카를 함께 즐긴다고 한다. 특히 여성들은 평소엔 입지 않던 드레스까지 입는다고 하니 이곳 사람들 역시 송구영신의 마음이 각별한 모양이다.

UB 포럼 회원들과 점심을 먹는 날이라 느긋하게 집을 나섰다. 혼자 생활하다 보니 먹는 문제가 항상 골칫거리였다. 식단을 외울 듯 들여다보다 갈치 정식을 주문했다. 바다가 없는 이곳에서 해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어디인가. 한국에서 공수된 냉동 갈치가 제맛은 아니어도 잊었던 구미를 당기기엔 충분했다. 고향의 맛에 빠져 정신없이 식사를 하는데, 임항규 총무가 한 움큼의 고추를 꺼냈다. 텃밭에서 직접 키운 것이라고 나눠주는데, 그 마음 씩씩이가 고마웠다. 벌써부터 갓 지은 밥과 고추장 속에 들어앉은 고추가 기대된다. 기대하지 못했던 정성 한 움큼에 마음 가득 행복이 퍼졌다.

식사와 함께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레 몽골인 이야기로 이어졌다. 고쳐야 할 생각과 행동이 많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급속한 민주화와 경제 개방에 따른 혼란 속에서도 유목 민족 특유의 전통을 지키며 몽골다운 모습을 지키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닐까?

몽골 드라마에 데뷔하다

방송국 입구 대리석 바닥에 조금씩 쌓인 싸락눈이 구두 밑바닥에 붙어 미끄럽기 그지없다. 이런 을씨년스러운 밤에, 그것도 휴일인 토요일에 방송국행이라니... 방송국 자문관이면 프로듀서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보며 조언만 하면 될 일을 왜 드라마 촬영을 승낙했는지 후회가 막급이었다. 며칠 전 우연히 강의실에 들렀다가 청소년 프로그램 제작을 책임지고 있는 프로듀서를 만났고, KBS에 방송될 몽골 드라마와 관련된 이야길 나

누다가 이상하게 엮여 들었다. 마침 드라마 촬영에 한국인 2명이 필요하다며 잠깐 출연해 줄 수 없냐는 물음에 큰 고민 없이 '오케이'라고 대답한 것이 오늘을 자초했다.

드라마 촬영 시간을 앞두고 연출 관계자가 우리를 찾길 무작정 기다린다. 촬영은 방송국 내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는데, 일반 기업의 회의실로 설정된 것 같았다. 나와 함께 덩달아 캐스팅된 노경률 자문관과 함께 현장으로 들어섰다. 며칠째 이어졌을 촬영에 스태프들의 얼굴에 피곤함이 배어 있었다.

우리가 맡은 역할은 몽골 기업을 찾아 온 한국인 투자자였다. 촬영은 밤 9시에 시작해 3시간가량 진행되었는데, 영성한 촬영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맡은 일에 열심인 스태프들의 열의가 가상했다. 촬영을 하면서 들여다 본 몽골의 드라마 제작 현장은 무척 열악했다. 촬영 전 리딩이나 리허설도 없이 쪽 대본과 애드리브에 의존했고, 부족한 조명 기기는 영성한 모습으로 현장을 밝히고 있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드라마 촬영 현장은 최첨단 설비를 갖춘 최상의 조건이었다.

내가 드라마 조연출로 방송국 생활을 시작했을 당시 야외 촬영은 주로 흑백 필름 카메라를 사용했다. 16mm 촬영용 카메라인 필모(Filmo)나 아리플렉스(Arriflex)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나갔던 기억이 난다. 당시 야외 촬영한 필름은 현상 후 테이프에 녹화한 후 연기자들의 목소리 더빙을 해야 했다. 지금은 몽골에서도 동시 녹음이 되는 소형 DSLR 카메라로 촬영을 하니 얼마나 편리한 조건인가. 다만 기기는 최신형인데 반해 촬영 시스템은 아직 옛날 방식이라는 점이 아쉽다. 그야말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혼재한 몽골 드라마의 촬영 현장이었다. 촬영 당일의 타임 스케줄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대본도 완벽하지 않았으며, 프로듀서의 구상도 치밀하지 않은 것 같았다. 아마도 열악한 제작비와 제작 환경 때문이었으리라. 오죽하면 그럴듯한 건물 공간이 아닌 방송국 회의실에서 촬영을 했을까.

환경과 별개로 몽골 방송인들의 제작 열의는 칭찬할 만하다. 다만 종합 예술인 드라마를 제작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였다. 충분한 제작비, 제대로 된 대본, 충분한 시간

과 체제를 바탕으로 제작해도 힘들 일을 임기응변으로 버티고 있으니 오죽하랴. 필요한 사람이 보이면 전문 연극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투입시키는 이들의 임기응변이 놀라울 따름이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나 역시 프로듀서 생활 초창기에 출연자는 영상을 위한 소품 정도로 여겼다. 영상을 꾸며 주는 오브제로, 출연자를 수단으로만 생각했지 목적으로 여기지 않았다. 내가 연출하는 작품 속에 나오는 한국인 모두가 피사체가 될 수 있다고 여겼다. 몽골의 현실은 마치 그때와 같았다. 이들이 촬영하는 드라마 스토리는 픽션인데 촬영 조건은 다큐멘터리 그 자체였다.

활력이 절실한 몽골의 경제



몽골국영방송국 입구에서

최근 나빠지는 몽골 경제의 칼바람이 방송국에도 불어 닥쳤다. 방송국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직원 700명 중 100명이나 감원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새해 벽두부터 방송국 분위기가 술렁거리고 있었다. 주로 지원 부서 위주로 감원이 진행되었는데, 국제 협력 담당 부서도 폐지되면서 직원 5명 모두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 내가 머느릿감으로 고려했던 바야르마도 풍랑을 피하지 못했다.

세계적 불황답게 몽골의 경제 사정도 당분간 낙관하기는 힘들 것 같았다. 구조적으로 이들은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 1인당 평균 월 소득도 500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저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를 꾸려 가는 상황인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투잡을 가진 사람이 많다. 그래

야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만난 택시 운전사의 경우 공사용 시멘트 생산 업체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겨울마다 일이 없어 운전을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개인의 이익만 챙기는 정치인의 소식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아니 전 국민이 개인의 이익에만 관심을 두고 있을 뿐 뜻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 유목 민족의 기질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경제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이들도 지난날의 우리처럼 새마을 운동이라도 해서 경제 분야의 활력을 찾았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다. 결국 경제는 사람의 일이다. 특히 국민을 이끌어 가는 정치인들이 구체적 비전과 시대정신을 제시하고 각성해야 한다. 나라 발전은 물론 자라나는 후세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이제 몽골은 더 이상 칭기즈 칸의 나라가 아니다. 지나간 역사에 대한 자부심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한국으로 가는 산 넘어 산

오늘 겨우 한국 취재를 위한 협찬 요청서의 모양새가 갖춰졌다. 한 달 전 내가 미국으로 휴가를 떠나면서 아침 방송 팀의 볼로마에게 한국 기업 두 곳에 편지를 보내라고 했는데 실행을 못하고 있었다. 결국 내가 휴가를 다녀오고 직접 확인한 끝에 오늘에야 한국으로 보낼 편지가 준비되었다.

사실 나는 몽골 사람들의 일하는 태도가 못마땅했다. 한국 취재 이야기가 나온 지가 반년이나 되었는데 일의 진척이 없었다. 처음엔 한국의 방송 후배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돈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 쉽지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나는 볼로마에게 한국 기업에 직접 편지를 보낼 것을 제안했다. 그녀가 영문 편지를 쓰고 제작비를 산정하면 내가 점검하는 방법으로 일을 진행했는데, 한편으로는 일련의 과정 속에 그녀의 문서 작성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



국제 행사에서 사회를 보는 볼로마

볼로마는 방송 경력 10년차에 접어든 고참 사회자로, 원래 기자 출신으로 주로 아침 방송의 사회를 보거나 인터뷰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작은 체구에 모르긴 해도 말솜씨가 뛰어난 것 같았다. 하지만 자신이 하던 일 외에는 어수룩했다. 아니 낮은 일에 도전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 나는 자문관으로서 그것을 바꿔 주고 싶었다.

편지를 완성하고 난 후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간과했던 부분이 발견되었다. 한국 취재에 동행할 통역가 예산이 빠졌던 것이었다. 급히 볼로마에게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 수정하자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그녀의 답신이 내일 당장 만나길 바라는 눈치였다. 이제야 조금씩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 적당히 쓴 원고만 가지고 방송하던 친

구가 스스로 일을 만들어 가니 재미가 붙은 모양이었다. 그 반응에 힘을 보태기 위해 나도 자문관으로서 한국에 보낼 편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몽골 방송사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며 취재 협찬을 정중히 요청했다. 한·몽골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몽골 대통령과 총리의 방한이 연이어 계획된 시점에서 방송 시기는 좋은데... 어쨌든 한국 취재는 계속 산 넘어 산이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휴가를 다녀온 후로는 몽골어 통역가를 구하는 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나하고 호흡이 잘 맞던 통역가가 대학원 공부를 위해 갑작스레 떠난 후, 난 한쪽 팔을 잃은 느낌이었다. 더욱이 방송국 안팎에서 도와주던 바야르마마저 방송국을 떠난 후 내 입은 굳게

단혀 버렸다. 한국어, 몽골어, 영어의 틈바구니에서 도움을 주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니 생활의 활력이 생기지 않는다. 방송은 언어가 생명인데 이들을 교육시켜야 할 입장에서 그 전달 수단이 막힌 것이다.

어느새 강의 시작까지 이틀밖에 여유가 없었다. 순간 대학원에 진학한 통역가의 말이 떠올랐다. 과학기술대 학생 중에 한국말을 잘하는 친구가 있다고…. 서둘러 연락을 했고, 다행히 통역을 도와주기로 했다. 전화로 내 이야기를 곧잘 알아듣는 걸 보니 큰 문제는 없어 보였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여기저기서 어려움이 쏟아졌다. 어릴 때 한국에 가서 중학교 1학년 때 몽골로 돌아왔다는 말에 안심을 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다. 경제 관련 용어가 거론되거나 SOC, 이념 등 조금만 단어가 어려워져도 통역이 막혔다. 내가 통역을 너무 쉽게 여긴 모양이었다. 이전의 통역가가 워낙 능숙하게 잘해 주었던 까닭에 통역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전적으로 나의 이해 부족 때문이었다.

일찍이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가 사유한 명철한 정의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Die Sprache ist das Haus des Seins).’ 백 번 지당한 말씀이다. 방송을 평생의 업으로 일해 온 나에게는 더 더욱 맞는, 가슴을 치는 명언이다.



**몽골
금영명**

-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 신문학과 / 석사 재학
- 前 한국방송공사 근무
- 前 동아방송예술대학 방송미디어학과 조교수
- WFK NIPA Advisors – 몽골 MNB 파견